

아프리카 농업의 현대화 선도한다

전북대, 우간다에 농축산 시범단지 개소... 한국 산업체 진출 길 열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14일 우간다 카바노로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트너 기업, 마케레레대학과 함께 '우간다 한국형 농축산 시범단지 개소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에드워드 세칸디 우간다 부통령, 이준희 주우간다 대사관 영사, 버나드 바샤샤 마케레레대 농대 학장, 김태형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장을 비롯해 우간다 정부, 주요 농업분야 연구기관장, 농업협동조합장 등 한·우간다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의 일환으로 '우간다 농축산 순환형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KOICA, 전북대와 민간기업이 지원해 마케레레대 농업연구소 부지에 한국형 농축산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기술 보급과 농민교육을 2년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원국 농가 소득 창출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국제협력력을 통해 지원하며, 우간다 사업은 이글벳(대표이사 강태성)과 신한에이텍(대표이사 김형규)이 고품질 양계시설과 스마트팜 원예시설 구축 및 운영에 파트너기업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내년 말 사업 종료 후에는 전북대와 파트너기업이 현지 한국형 협동조합, 전북대 졸업생들이 설립한 농업 벤처기업들과 함께 7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우간다에 'KOICA 봉사단'으로 파견한 학생 21명과 본교 석사를 졸업한 우간다



전북대가 지난 14일 우간다 카바노로에서 '우간다 한국형 농축산 시범단지 개소식'을 열었다.

마케레레대학 졸업생들이 협업하여 양계 소득창출, 원예분야 작물생산 및 수확 후 농산물 건조를 통한 소득창출, 가축 퇴비자원화 활용 등 우간다의 빈곤 해결을 넘어 가치창출 농축산업을 육성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을 기획·추진한 전북대학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허재영 교수는 우간다 부통령과 참석자들에게 "한국형 농축산 시범단지는 우간다를 아프리카 농산업의 리더로 성장시키고, 양국 기업 비즈니스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영사는 "이 사업은 우간다의 국가 개발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국 경제계에 성공적인 투자 기회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양국 사업팀이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세칸디 우간다 부통령은 시범단지를 돌아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농산업 모델을 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로 구체화한 모든 관계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며 "우간다 농업 현대화를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농민들에게

보급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현지 개소식은 우간다의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됐으며, 우간다 NTV에서 연말에 다큐멘터리 방영을 준비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학교부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김종기)는 지난 2016년 'KOICA 우간다 농업지도자 연수원 운영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우수 학생들을 초청해 전북대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등 우간다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함께 사는 우리 마을, 행복한 우리 학교’

도교육청, 오늘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 협의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오늘 오전 11시 5층 회의실에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근석)를 개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생태적 관점에서 지역 중심의 교육 문화 만들기

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마을교육생태계란 마을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2018년 10월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올해 각 시·군 지역에서는 지역

추진단을 구성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교육 사업을 추진했으며, 혁신교육특구 6곳, 농어촌교육특구 지역 10곳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교육청 예산 34억과 지방자치단체 36억을 투입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여건과 학생 교육에 힘써왔다.

이번 총 11명의 추진위원회 위원단 협의회에서는 2019년도 지역추진단 조직 현황과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2020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기본 계획과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지역 구성원이 주체가 돼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마을교육생태계가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도 시·군 지자체와 더욱 협력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한식조리학교, 내년도 1년 과정 신입생 모집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는 2020학년 1학기 1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교는 지난 2012년 국제적 감각의 한식 프로세스를 양성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한식 조리학교다.

이번 과정에서는 발효음식, 한식조리실습, 찬품, 양식조리실습, 채식조리 등 다양한 조리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1인 1실습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국내·외 유명 셰프와 요리연구가, 교수 및 CEO 등으로부터 외식업계의 최신 트렌드, 성공담, 실무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

2019년에는 △정관스님 △우순덕 전주음식 명인 △천상현 셰프(전 청와대조리장)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하여 한식조리의 노하우를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조리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한식조리학교 홈페이지(www.cakchef.com)와 대표 전화(063-



230-1667)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국제한식조리학교는 학점은행제를 실시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고용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취·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외국인 한식조리연수지원 기관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국내외 한식강사 교육 △김치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한식 관련 국책사업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공신력을 확보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성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LINC+사업단은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머핀조'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주비전대·전주대 LINC+사업단 공동 주관으로 총 30개 팀이 참가했다.

대상을 차지한 전기과 '머핀조' 팀의 '소화기 위치 및 화재 대피경로 알림' (지도교수 김창현, 참여학생 홍대오 외 4명)은 화재발생시 연기발생과 혼잡함으로 소화기 위치와 비상구를 찾지 못해 초기진입이 늦어지고 인명피

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안한 시스템이다.

김창현 교수(전기과)는 "아두이노와 온도센서 등을 결합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위치와 대피경로를 LED 점등으로 바로 알 수 있게 해 빠른 초기진입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박용균)은 산업체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선정, 설계부터 제작까지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경제 활성화 위한 행정실장 회의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지난 18일 영재교육원에서 관내 유·초·중 행정실장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학교회계 재정집행 최대화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회계 재정집행 최대화를 특별히 강조한 바 있어 전주 관내 학교가 적극 동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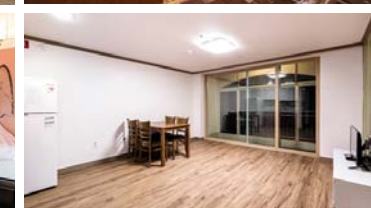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회계 이·불용액 최소화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고,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교복 구매 계약요령 및 동절기 학교 시설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알기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항근 교육장은 "한사람의 열정을 보다 열사람의 한결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교회계 재정집행 최대화를 위해 학생·교직원 복지여건 향상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 기회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